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최근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① 제조업 불황 속 서비스업의 선전
- ② 내수에 비해 수출 부진이 상대적으로 심각
- ③ 현재 신흥시장 리스크의 영향은 일부에 국한
- ④ 경제 핵심 부문인 IT 산업의 경기 선도력 상실
- ⑤ 전반적 불황 속 호황 산업도 존재



목 차

■ 최근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거시 경제 동향	1
2. 주요 산업 동향	3
3. 최근 산업경기의 5대 특징	5
4. 시사점	10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연구실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최근 산업경기의 5대 특징과 시사점

■ 거시 경제 동향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기지수에서도 회복 신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을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보면 2015년 2분기에 2.2%로 2013년 1분기 이후 2년 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전기대비 기준으로는 2분기에 0.3%(0.311%)로 2014년 4분기(0.267%)를 제외하고는 2009년 1분기 이후 6년 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기준치(100p)를 하회하는 가운데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추세가 하락 반전하면서 경기회복 신호가 실종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2015년에 들어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가운데 극심한 수요 침체로 재고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2분기만 본다면 재고증가에 의한 경제 성장 기여도가 1.3%p에 달해 경제성장률 2.2%중에서 재고를 제외한 순수한 성장 효과는 0.9%p에 불과하다.**

■ 주요 산업 동향

<제조업>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쌓이는 전형적인 수요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제조업 생산증감률은 2014년 4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가 지속중이다. 이에 따라 2015년 1~7월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74.3%로 2009년 (1~7월 평균 71.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최근 재고증감률-출하증감률 간 큰 폭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수요 부진을 보여주고 있다(201년 5월 6.5%p, 6월 7.0%p, 7월 6.6%p). 제조업의 생산 활동이 나날이 위축되는 반면 그나마 <서비스업> 생산은 높지는 않으나 일정 수준 이상의 증가세를 지속중이다. 특히 서비스업중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의 **생산자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음식·숙박, 문화 등의 **소비자 서비스업의 생산은 전체 서비스업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건설업>은 2014년 하반기 이후 건설업의 생산 감소가 지속되었으나 2015년 7월에 들어 **건축 부문이 반등하면서 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토목 부문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규모 정부 사업이 일단락되면서 전년대비 감소세를 지속중이다.

■ 최근 산업 경기의 5대 특징

최근 산업 경기의 특징으로는 ① **(제조업 불황 속 서비스업의 선전)** 제조업의 침체를 서비스업이 방어하고 있으나 그 체력이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으로 판단된다. 우선 제조업 GDP갭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데, 올해 2분기에 서비스업마저도 소폭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한편, 2015년 7월 기준 생산감소업종수 비율을 보면 광공업이 65.2%로 2014년 7월의 38.2%보다 급증한 상황이다. 아무리 원자료에 불규칙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간과할 수 없

는 신호이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2014년 7월 38.7%에서 2015년 7월에 48.7%로 생산감소업종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② **(내수에 비해 수출 부진이 상대적으로 심각)** 내수 및 수출 출하가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IT 및 조선을 제외한 업종은 내수출하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2015년에 들어 내수출하와 수출출하가 모두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특히 수출출하가 더 부진한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화학, 금속, 기계, 자동차 등의 내수 출하가 그나마 시장 수요 부진을 완화하고 있다.

③ **(현재 신흥시장 리스크의 영향은 일부에 국한)** 對 개도국 수출이 對 선진국 수출보다 침체 강도가 더 크나, 업종별로 본다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1~8월 전년동기간 대비 對 非OECD 수출증감률은 $\Delta 8.4\%$ 로 對 OECD 수출증감률 $\Delta 2.2\%$ 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인다. 그러나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정제, 선박,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對 OECD 와 對 非OECD 수출증감률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근거한다면 아직까지 산업 부문에서는 신흥시장 리스크의 영향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④ **(경제 핵심 부문인 IT 산업의 경기 선도력 상실)**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IT 산업이 非IT 산업에 비해 경기 침체 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제조업 IT 산업의 생산이 非IT 산업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IT 부문은 산업의 성숙화, 글로벌 경기의 장기 침체 등으로 非IT 부문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인다. 또한 서비스업도 2015년에 들어 정보통신업(통신업, 출판·방송·영화·정보서비스)의 경우에도 생산증감률이 전체 서비스업을 하회중이다.

⑤ **(전반적 불황 속 호황 산업도 존재)** 대부분 산업들이 경기 불황을 경험하는 가운데 상대적인 호조를 보이는 산업들도 존재한다. 우선 저금리 기조 지속, 주택 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적 요인으로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서비스 산업은 상대적인 호조를 시현중이다. 또한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약화, 우호적 시장 여건 조성 등으로 온라인 쇼핑 산업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중이다.

■ 시사점

현재 한국경제에 대해 평가를 하자면 거시경제 전반의 상황만 놓고 보면 아직 불황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산업 경기를 분해해서 분석해 보면 일부 회복의 조짐이 미약하나마 존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산업 경기의 회복세를 강화하고 경제 전반이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재정 지출 확대와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누가 봐도 확고한 경기 전환점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소비 진작과 기업 투자 활성화 노력 등으로 서비스업의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FTA의 활용도 제고와 선진국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 한다. 넷째, IT 산업의 성장 정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 3.0」과 같은 IT 융합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수용의지가 필요하며, 서비스업 내에서는 기업 규모의 대형화, 글로벌 시장 진출 노력 등에 주력해야 한다.

1. 거시 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이 근래 보기 드물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 동향 및 선행 지수에서도 회복 신호를 찾기가 어려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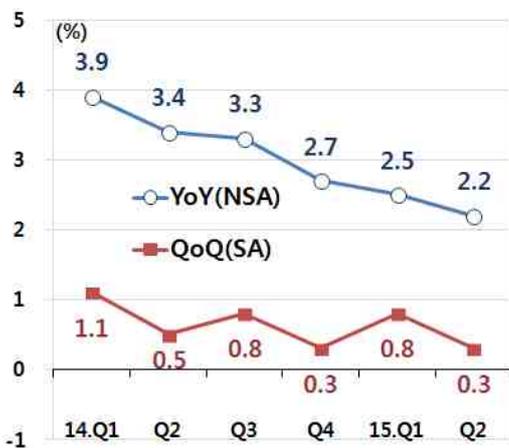
-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비 성장률도 미약한 수준

- 전년동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는 가운데 2015년 2분기에는 2.2%로 2013년 1분기 이후 2년 1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전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5년 2분기에 0.3%(0.311%)로 2014년 4분기(0.267%)를 제외하고는 2009년 1분기 이후 6년 1분기 만에 최저 수준임

- 동행지수가 기준치(100p)를 하회하는 가운데, 선행지수도 최근 추세가 하락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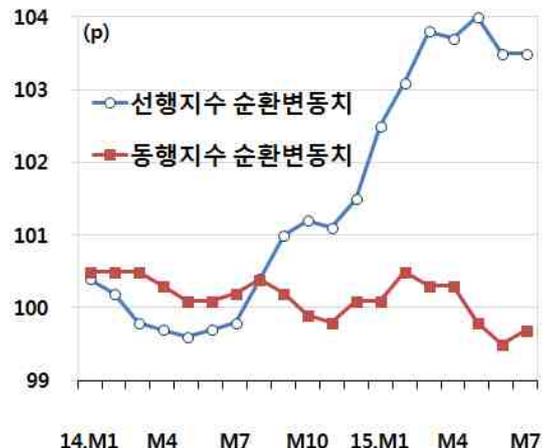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5년 초중반 기준치 100을 상회하다가 최근에 들어 기준치에 미달하는 모습을 보임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에도 2014년 중반부터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미래 경기의 회복 신호를 보내었으나, 최근에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향후 경기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킴

<분기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 통계청.

○ 외수가 경제성장력을 잠식하는 가운데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는 급락중

- 수요 부문별로는 2015년에 들어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 되는 가운데 재고는 급증하는 모습

- 순수출(수출-수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2015년에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됨(순수출 기여도는 2014년 분기 평균 0.5%p에서 2015년 1분기 Δ 0.6%p, 2분기 Δ 1.2%p)
- 한편 재고가 경제성장에 플러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는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 따른 것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2분기 기준으로 재고를 제외하면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0.9%에 불과함

- 서비스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제조업의 기여도는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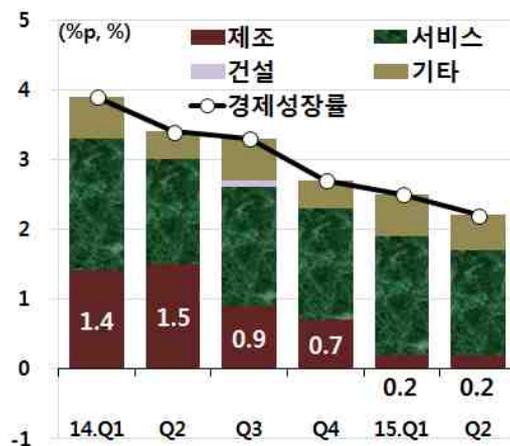
-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는 2014년 분기 평균 1.1%p에서 2015년 상반기 0.2%p로 급락함
- 다만 서비스업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서비스업이 경제 성장력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요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산업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2. 주요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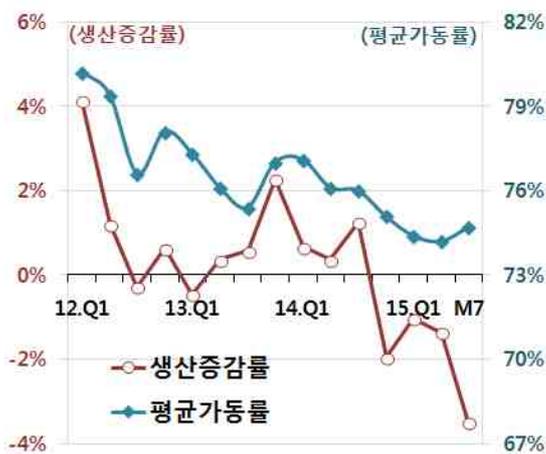
○ 제조업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쌓이는 수요 부진 국면도 장기화

- 제조업 생산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가동률도 하락 추세를 지속
 - 제조업 생산증감률은 2014년 4분기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가 지속중임
 - 다만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7월에 들어 2분기보다 소폭 상승하는 추세임
 - ※ 평균가동률: 5월 73.2%, 6월과 75.2%, 7월 74.7%
 - 1~7월 평균치로 본다면 2009년 1~7월 71.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74.3%에 그침

-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쌓여 있는 전형적인 수요 부진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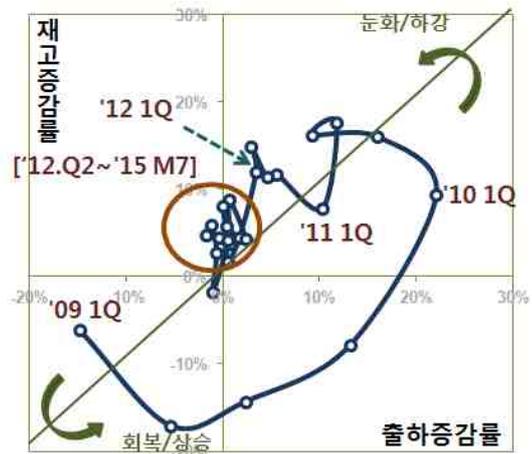
- 최근까지 한 자릿수의 재고증가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출하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재고증감률-출하증감률 격차는 5월 6.5%p, 6월 7.0%p, 7월 6.6%p를 기록중)
- 특히 이러한 재고증감률의 출하증감률 상회 현상은 2012년 2분기 이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수요의 불황 고착화 가능성이 우려됨

<제조업 생산증감률 및 가동률>



자료 : 통계청.
주 : 생산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제조업 재고-출하 사이클>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 서비스업은 생산자서비스 부문이 경기를 견인하고 있으며 건설업은 건축 부문이 상대적으로 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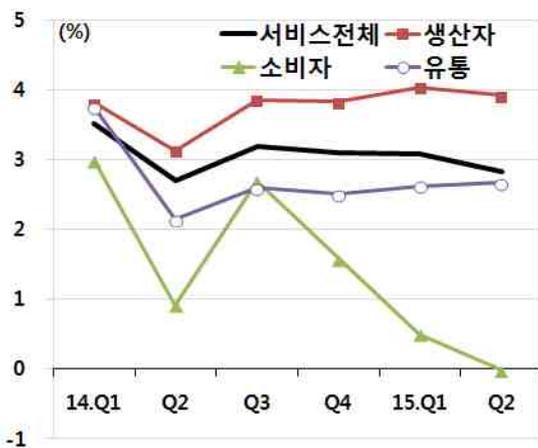
-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세는 3% 내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문별로는 생산자서비스가 상대적으로 호조

- 제조업의 생산 활동이 나날이 위축되는 반면 그나마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세는 전년동기대비 3%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서비스업 내 부문별로는 기업 활동과 더 관련성이 높은 사업서비스, 금융·보험 등의 생산자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임
- 또한, 도·소매, 운수·보관 등의 유통 서비스업도 비록 전체 서비스업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점차 상승하는 모습임
- 그러나, 음식·숙박, 문화 등의 소비자 서비스업의 생산은 전체 서비스업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그 격차도 확대중임

- 건설업은 토목 부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건축 부문이 반등하면서 건설기성액 증감률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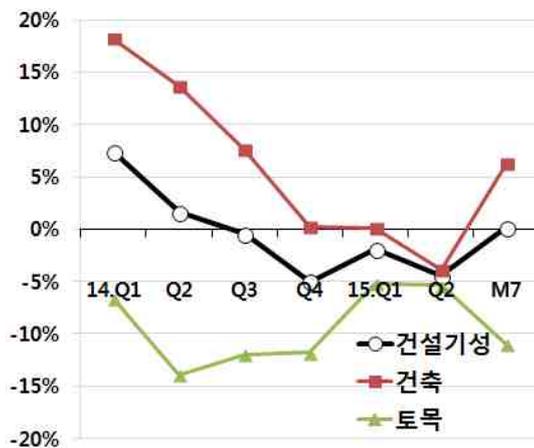
- 2014년 하반기 이후 건설업의 생산 감소가 지속되었으나 2015년 7월에 들어 건축 부문이 반등하면서 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됨
- 다만 토목 부문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대규모 정부 사업이 일단락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중임

<서비스업 생산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건설업 생산증감률(건설기성액)>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3. 최근 산업 경기의 5대 특징

① 제조업 불황 속 서비스업의 선전

○ 제조업의 침체를 서비스업이 방어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체력이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으로 판단

- 제조업 GDP갭률¹⁾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지속, 2분기에는 서비스업도 마이너스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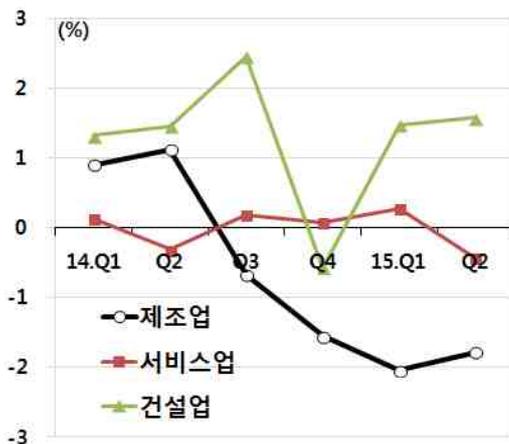
· 제조업 갭률은 2014년 2분기 +1.1%에서 급락하여 2015년 2분기 Δ 1.8%를 기록, 서비스업 갭률은 양(陽의, +)의 값에서 2분기에 Δ 0.4%로 전환됨

- 7월 기준 생산 감소 업종수 비율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모두 2014년에 비해 2015년이 큰 폭으로 증가

· 2015년 7월 누계 기준 총 89개 광공업 89개 산업중 58개 산업이 전년동기 대비 생산이 감소하여 65.2%의 비율을 기록함('14년 38.2%→'15년 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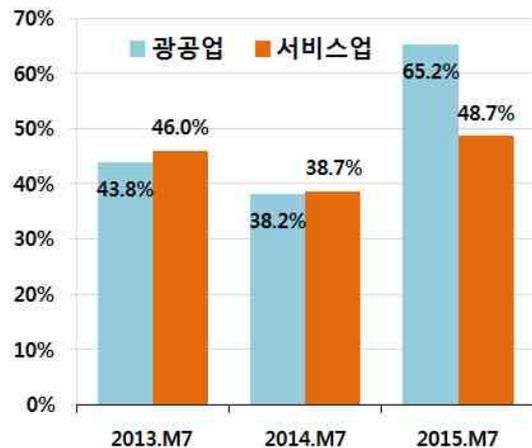
· 한편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총 150개 산업중 73개 산업이 생산 감소를 경험하여 48.7%의 비율을 기록함('14년 38.7%→'15년 48.7%)

<주요 산업별 GDP갭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광공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감소 업종비율²⁾>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통계청 자료를 이용).

- 1) GDP갭률이란 (실질GDP-잠재GDP)/잠재GDP로 계산되며, 그 의미는 평균적인 추세(잠재) GDP에서 실제 GDP가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임. 갭률이 마이너스이면 현재의 경기가 평균적인 수준보다 나쁘다는 것을 말하며 그 갭이 크면 클수록 경기 상황이 더 악화됨을 의미함.
- 2) 광공업 생산감소 업종비율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동향조사중 산업별 3레벨 89개 산업중 전년동월대비(1~7월 누계) 감소 업종수의 비율임. 또한 서비스업의 생산감소 업종비율은 통계청의 서비스업 동향조사중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장 세부업종 분류로 150개 산업중 전년동월대비(1~7월 누계) 감소 업종수의 비율임(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하위 분류 업종이 없거나 유일한 하위 분류 업종의 생산증감률이 상위 분류 업종의 증감률과 다를 경우 상위 분류 업종의 증감률을 사용함).

② 내수에 비해 수출 부진이 상대적으로 심각

○ 제조업 내 내수 및 수출 출하가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IT 및 조선을 제외한 업종은 내수출하가 상대적으로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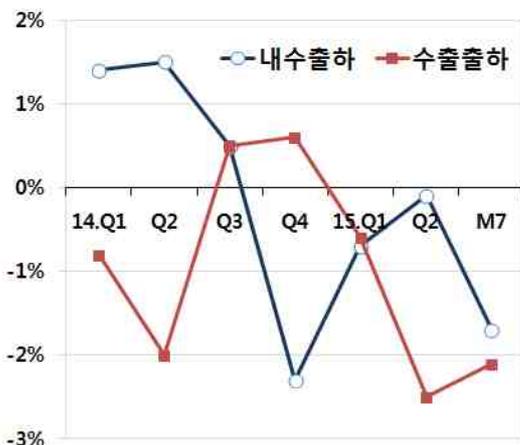
- 2015년에 들어 내수출하와 수출출하가 모두 감소세를 시현, 특히 수출출하가 더 부진

- 2014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어느 정도의 보완적인 관계, 즉 내수가 부진하면 수출이 어느 정도의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음
- 그러나 2015년에 들어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일제히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이중 불황(double slump)에 직면함

- 업종별로는 화학, 금속, 기계, 자동차 등의 내수 출하가 그나마 시장 수요 부진을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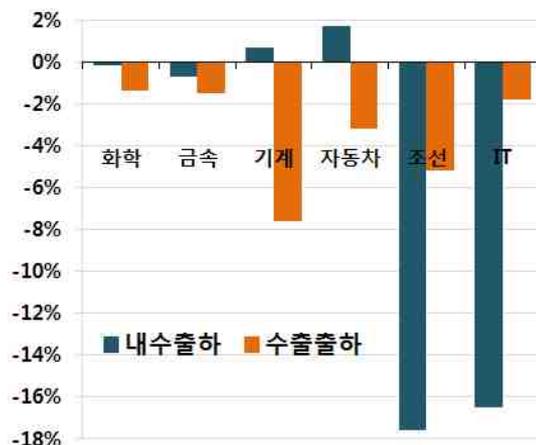
- 2015년 1~7월 누계 기준으로 주력 수출 업종들에서 모두 수출 출하가 감소하는 모습임
- 내수 출하의 경우 기계, 자동차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학, 금속이 소폭의 감소세, 그리고 조선 및 IT가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중임

<제조업 수출 및 내수 출하증감률>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업종별 수출 및 내수 출하증감률>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2015년 7월 누계).

③ 현재 신흥시장 리스크의 영향은 일부에 국한

○ 전체로 보면 對 개도국 수출이 對 선진국 수출보다 침체 강도가 더 크나, 그 수출 침체는 아직 석유정제(석유), 선박, 자동차 등에만 국한되는 모습

- 전체 수출중 對 非OECD 수출 감소가 對 OECD 수출 감소보다 더 심한 상황이나 석유(석유정제), 선박,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이 두 지역에 대한 수출 경기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2015년 1~8월 전년동기간 대비 對 非OECD 수출증감률은 $\Delta 8.4\%$ 로 對 OECD 수출증감률 $\Delta 2.2\%$ 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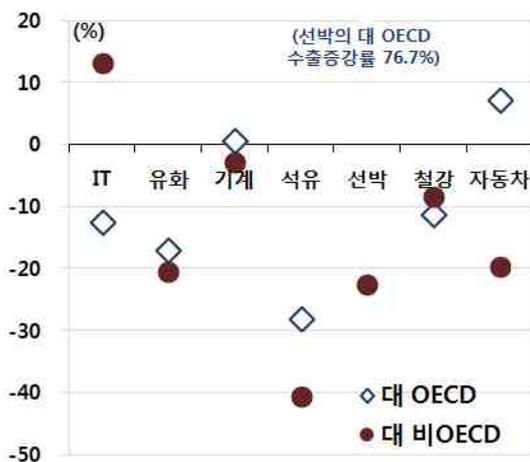
· 품목별로 석유(석유정제), 선박,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고는 對 OECD 와 對 非OECD 수출증감률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對 非OECD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IT와 석유화학 등이 80% 내외로 절대적인 개도국 시장 의존도를 가지지만 실제 신흥국 시장 리스크의 영향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

· 2015년 1~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에서 對 非OECD 수출 비중은 65.6%에 달하고 있으며 對 OECD 수출 비중은 34.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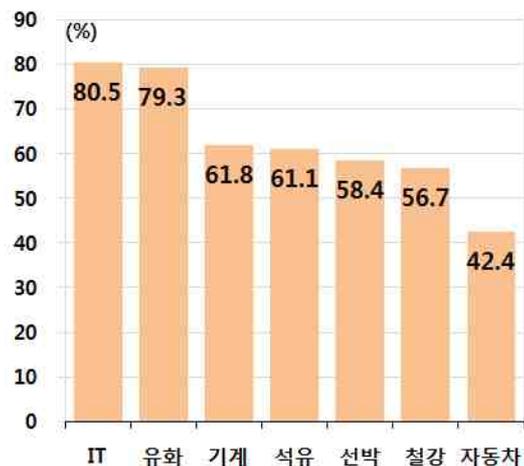
· 산업별로는 IT, 유화(석유화학) 등이 80% 내외의 신흥시장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기계, 석유(석유정제), 선박, 철강 등이 60% 내외의 의존도를 가짐

<對 OECD 및 非OECD 수출증감률>3)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전년동기대비(2015년 1~8월)

<對 非OECD 수출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5년 1~8월 기준.

3) 그림의 가독력을 위해 선박의 對 OECD 수출증감률은 수치(76.7%)만 표시하였음.

④ 경제 핵심 부문인 IT 산업의 경기 선도력 상실

○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IT 산업이 非IT 산업에 비해 경기 침체 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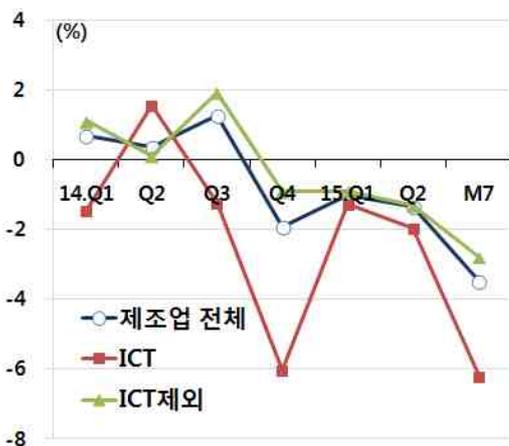
- 제조업 생산증감률은 2014년 3분기 이후 IT 부문이 非IT 부문을 크게 하회

- 과거 제조업 IT 산업의 생산이 非IT 산업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에 들어 IT 부문은 산업의 성숙화, 글로벌 IT 경기의 장기 침체 등으로 非IT 산업보다 낮은 성장세에 그치고 있음
- 다만 IT 부문 내에서도 반도체 등은 실적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 무선통신 기기, 액정디바이스, TV 등은 부진한 상황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으로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은 2015년에 들어 IT 부문이 非IT 부문을 하회하면서 격차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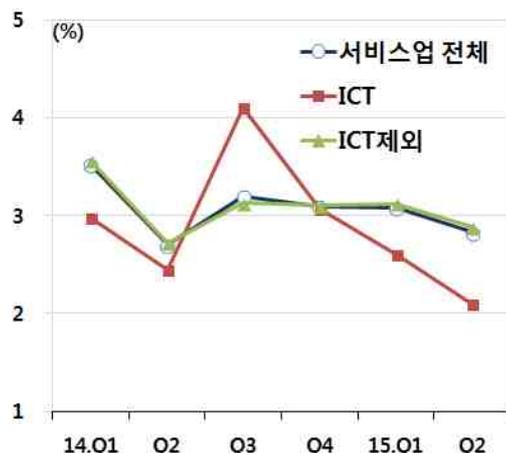
- 서비스업중 정보통신업(통신업, 출판·방송·영화·정보서비스)을 IT 산업으로 간주한다면,
- 2015년에 들어 IT 서비스 산업의 생산증감률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함

<제조업의 IT 및 비IT 생산증감률>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서비스업의 IT 및 비IT 생산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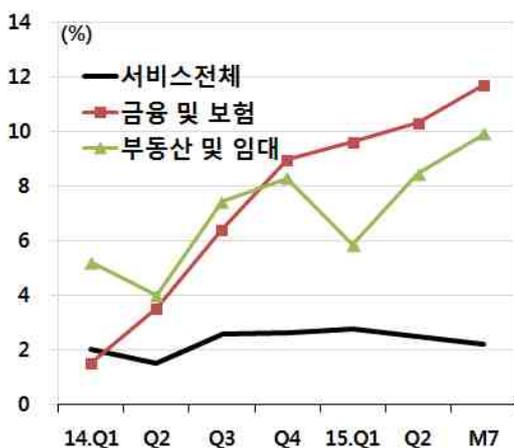
⑤ 전반적 불황 속 호황 산업도 존재

○ 전반적인 산업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상대적인 호조를 보이는 산업들도 존재

- 저금리 기조 지속, 주택시장 활성화 등의 정책적 요인으로 금융·보험 및 부동산·임대 서비스 산업은 상대적인 호조를 시현
 - 통계청 서비스업 동향조사 기준으로 서비스산업 전체의 생산증가율은 2% 내외에서 횡보하고 있는 반면,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산업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세가 확대되는 추세임
 - 이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주택 거래 확대 등으로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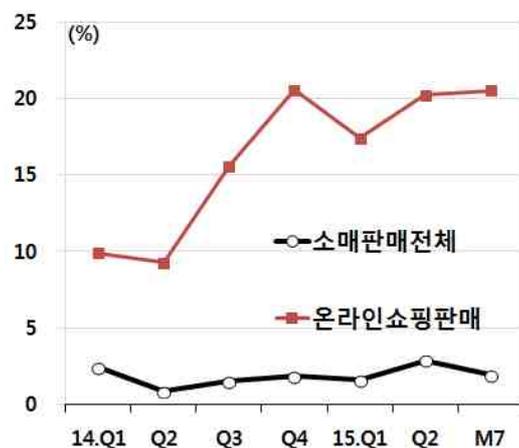
-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약화, 시장 수요의 우호적 여건 조성 등으로 온라인 쇼핑 부문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
 - 전체 소매판매액지수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온라인쇼핑판매액지수 증가율은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중임
 - 이는 구매력 약화로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IT 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산업이 고성장을 지속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금융·보험 및 부동산·임대 산업의 생산증감률>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소매 및 온라인쇼핑 판매액지수증감률>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3. 시사점

- 현재 한국경제에 대해 평가를 하자면 거시경제 전반의 상황만 놓고 보면 아직 불황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됨
- 그러나 산업 경기를 분해해서 분석해 보면 일부 회복의 조짐이 미약하나 마 존재하는 것은 분명함
- 따라서 산업 경기의 회복세를 강화하고 경제 전반이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와 저금리 기조 지속, 적극적인 소비 진작과 기업 투자 활성화 노력, FTA의 활용도 제고와 선진국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 IT 산업의 성장 정체 현상 극복 등의 노력이 필요함

첫째, 재정 지출 확대와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누가 봐도 확고한 경기 전환점을 형성해야 한다.

- 경기 회복의 강건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끌어 올려 수요 진작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SOC 분야에 대한 사업 조기 발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노동, 교육, 보육 분야 중에서 민간 소비 구매력 확충과 직결된 재정집행은 속도를 내야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와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시장 상황 변화에 선제적이고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민간경제주체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둘째, 적극적인 소비 진작과 기업 투자 활성화 노력 등으로 서비스업의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적시성이 확보되어 향후 소비 진작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나아가 최근 기업 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신속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력과 고용 창출력의 원천인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셋째,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FTA의 활용도 제고와 선진국 시장에 대한 공약을 강화해 한다.

- 기본적으로는 유럽 및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한-EU FTA와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민·관 공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 반면, 신흥국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 아시아 신흥국, 자원 수출국 등에 대한 시장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한편, 글로벌 유동성의 이동 속도가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서의 투기 자금과 변동성 변화에 대한 감독 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넷째, IT 산업의 성장 정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IT 융합화, IT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 최근 IT 산업의 불황은 단기적이고 경기적인 측면도 있으나 시장수요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여 발생하는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추세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됨

- 이러한 IT 산업의 성장 정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조업에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제조업 혁신 3.0」과 같은 새로운 IT 융합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수용의지가 필요함
- 한편 IT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IT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며, 산업계 내부적으로도 대형화, 해외진출 확대 등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HRI**

< 연구자 >

주 원 이사대우 (juwon@hri.co.kr, 2072-6235)